

男·女 인구 격차 사상 최대로 벌어져... '나 혼자 산다' 41%

주민등록인구 5144만명, 3년 연속 감소
65세 이상 고령 926만명...女 20% 돌파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가 3년 연속 감소했다. 남녀 간 인구 격차는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

나홀로 사는 '1인 세대'는 1000만 세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비율로는 41%에 달한다. 1인 세대의 증가 영향으로 평균 세대원 수는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43만9038명으로 전년(5163만8809명)보다 0.39%(19만9771명) 감소했다.

인구 감소분은 순수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이 11만8003명,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가 10만1938명이다.

주민등록 인구 수가 감소한 것은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3년째다.

성별로는 남성 인구가 2563만6951명으로 전년(2574만6684명)보다 0.43%(10만9733명) 줄어들면서 지난 2019년부터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여성 인구는 2580만2087명으로 전년(2589만2125명)보다 0.35%(9만38명) 줄어 지난 2021년에 이어 2년째 감소 추세를 보였다.

남녀 간 인구 격차는 16만5136명으로 지난 2015년 처음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추월한 이래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연령대별로는 50대(16.74%)가 전체 인구 중 가장 많았다. 뒤이어 40대(15.7%), 60대(14.4%), 30대(12.9%), 20대(12.5%), 70대 이상(11.8%), 10대(9.1%), 10세 미만(6.9%)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26만7290명으로 전체 인구의 18.0%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성의 고령 인구 비중이 20.1%로 사상 처음 20%를 넘어섰다. 남성(15.9%)보다는 4.2%포인트(p) 높았다.

17개 광역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25.17%), 경북(23.78%), 전북(23.20%), 강

원(22.77%), 부산(21.47%), 충남(20.58%) 등 6곳이 '초고령사회'에 해당했다.

22개 기초 시·군·구별로는 75개 시 지역 중 초고령사회가 32곳(42.7%)으로 가장 많았고 고령사회 30곳(40.0%), 고령화사회 13곳(17.3%)이었다.

82개 군 지역 중에는 초고령사회 76곳(92.7%), 고령사회가 6곳(7.3%)이다. 69개 구 지역에서는 고령사회 40곳(58.0%), 초고령사회 23곳(33.3%), 고령화사회 6곳(8.7%)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1인 세대 증가 영향으로 세대 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말 기준 2370만5814세대를 기록했다. 반면 평균 세대원 수는 사상 최저치인 2.17명으로 감소했다.

세대원 수 별로는 '1인 세대'가 972만4256세대(41.0%)로 가장 많았다. 2인 세대 24.2%(574만4486세대), 4인 세대 이상 17.8%(422만6519세대), 3인 세대 16.9%(401만553세대)가 뒤이었다. 1~2인 세대가 전체의 65.2%를 차지해 전년보다



1.0%포인트 높아졌다.

전년 대비 인구가 증가한 지자체는 광역 시·도 5곳, 기초 시·군·구 52곳뿐이다. 광역 시·도 중에서는 경기(2만3982명 ↑), 인천(1만8939명 ↑), 세종(1만1696명 ↑), 충남(3780명 ↑), 제주(1400명 ↑) 순으로 인구가 늘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국가적인

당면 과제인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자체가 각자 특성에 맞는 정주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활성화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미리 인사드리러 왔어요'

설 연휴를 일주일 앞둔 15일 오전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만일당을 찾은 가족이 현화하고 있다.

오전시간대 '도심 광주천' 먹이활동 '수달' 포착

도심 속 광주천에서 오전시간대 먹이활동 중인 수달이 포착됐다.

14일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광주천에서 수달이 잉어를 잡아먹는 모습이 시민의 카메라에 담겼다. 영상에는 성체로 보이는 수달이 주변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잉어를 먹는 모습이 담겨 있다.

수달은 야행성으로 한낮에 먹이를 사냥하는 모습 뿐만 아니라 먹는 모습을 관찰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도심에서 이 같은 모습을 관찰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저녁 시간 광주천에서 수달이 유영하거나 이동하는 모습은 종종 관찰됐지만, 오전시간 물고기를 사냥해 먹는 모습이 영상으로 담긴 것은 이례적이라고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설명했다.

수달은 천연기념물 제330호이며, 멸종위기



종 1급이다. 광주천에서는 2010년 서식이 확인된 이후 광주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수달이 종종 목격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광주천이 다양한 생물의 보금자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수유입이 100% 차단돼야 한다. 또 인공구조물 최소화, 자연으로 돌려주는 구간 확대, 광주천의 자연유입 수량 증대를 위한 정책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동취재본부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